

17세기 전계소설(傳系小說)의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

-〈유연전〉과 〈강로전〉을 대상으로-

백지민**

<차 례>

1. 서론
2.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
: 정치적 담론의 우위 확보를 위한 도덕성 강조
3. 17세기 전계소설의 서사 전략 : 감정의 유발과 선택적 재현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을 통해 전계소설의 태동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전계소설(傳系小說)이 경험적 사실을 소재로 삼는 전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소설적 허구성을 띠는 것은 작자의 사회적 입장이 반영된 창작 동인, 이에 따른 효과적인 주제 형상화를 위한 서사 전략에서 비롯된다. 17세기 전계소설의 주요한 창작 동인은 정치적 담론의 우위 확보를 위한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맞물린 작자의 이념적·정치적 입장에 대한 변호 혹은 대변이며, 서사 전략으로 입전 대상의 선정과 실제 사건의 선택적 재현, 독자의 감정 유도 방식 등을 살폈다. 이항복의 <유연전>은 훈구파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위해 유연의 옥사 및 신원이라는 실제 사건을 그리고 있으며, 권척의 <강로전>은 서인 세력과 자신의 입장 변호를 위해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강홍립을 부정적 인물 형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17세기 전계소설에서

* 이 글은 국어국문학회와 BK21 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 사업단이 공동 개최한 제60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16.5.28)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나타나는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의 흐름은 18세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고소설사에서의 사실주의 도정에 주목거리로 여겨진다.

□ 전계소설, <유연전>, <강로전>, <김영철전>

1. 서론

17세기 전반, 전(傳)과 소설의 양식적 특성을 모두 아우른 새로운 경향의 작품군이 등장하였다.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열전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잔존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허구로서의 실기소설의 성격을 가진”¹⁾ 전계소설(傳系小說)의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전과 소설은 각각 교술 장르와 서사장르에 해당하는 양식이며, 그 지향점이 사실성과 허구성으로 상반된다. 일견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섞이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양식의 혼효는 전의 요체였던 경험적 진실성이 부분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허구적 진실성이 새롭게 확보되는 선상에서 고소설사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²⁾ 전계소설은 전통적 산문 양식인 전의 형식으로 지어졌지만 작자의 창작 동인에 따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전략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소설적 허구성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을 살피는 연구를 통해 전계소설의 태동과 그 전개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 17세기 소설사에서 전계소설이 담당했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에 고소설사의 지형이 급변하게 된 주요 흐름

1) 윤재민, 『한국 한문소설의 유형론』, 『동아시아문학 속에서의 한국한문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80쪽;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4쪽. 재인용.

2) 신해진(2003), 위의 책, 37쪽.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계소설의 출현과 전개는, 비록 작품의 수가 많지 않지만 초기소설사의 주류를 이루던 전기소설의 급격한 변모와 함께 한문소설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고소설사에서 사실주의 전개의 단초가 되었으며, 바야흐로 문학사는 본격적으로 소설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본고에서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을 살피기 위한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은 17세기 전계소설 중 이항복의 <유연전>과 권척의 <강로전>이며,³⁾ 이후로 18세기 전계소설의 실상과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홍세태의 <김영철전>을 보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⁴⁾ 이 세 작품은 각각 17세기 전반과 18세기 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이 세 작품에 대한 작자, 창작시기, 주제, 인물, 갈래 등 개별적 논의들⁵⁾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17세기 소설사적 맥락에서 전계소설 양식으로 한정하여 이들 작품을 함께 다룬 논의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간 집적된 논의를 토대로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의를 찾고, 17세기 전계소설 양식이 이 후에도 유의미한 양식으로 꾸준히 창작·향유되었음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3) 17세기 전계소설 작품으로는 <유연전>과 <강로전> 외에도 허균의 5전 중 <남궁선생전>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남궁선생전>은 전기적 면모도 지니고 있는 바, 굳이 전계소설의 틀 속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박희병의 견해에 동의하여,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박희병, 『한국한문소설사의 전개와 전기소설』,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01쪽)

4) <유연전>과 <김영철전>은 각각 《백사집》과 《유하집》에 실린 원문을 번역한 신해진의 『조선조 전계소설』(앞의 책, 53~68쪽, 137~151쪽)의 번역을, <강로전>은 《동사잡록》에 실린 원문을 번역한 신해진의 『권척과 한문소설』(보고사, 2008, 109~158쪽)의 번역을 따르고, 작품을 인용할 경우 해당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5) 각 작품별 주요한 연구 성과는 지면 관계상 본문의 각주 참고.

2.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

: 정치적 담론의 우위 확보를 위한 도덕성 강조

조선 중기 임병양란을 위시한 크고 작은 전란의 충격은 상하관계의 질서를 뒤집어 보게 하고, 현실인식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게 하는 변화를 문학에서 일으켰다.⁶⁾ ‘불안의 세기’⁷⁾라 일컬어질 만큼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잦았던 16세기의 국가적 위기는 17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된다. 대외적으로는 명·청 교체기였던 이 시기에 조선은 양국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지만, 맹렬한 기세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청나라를 적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사화를 거치면서 중앙 정계로의 진출이 좌절되었던 사림파가 선조대에 이르러 집권층이 되었고, 그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급기야 반정을 통해 임금이 바뀌는 데에 이르렀다.

전계소설의 작자는 ‘있는 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있어야 할 세계’를 작품 말미의 논찬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전 양식의 미학적 구성 원리에 따른 일반적 특성이다. 그러나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작자의 생각은 논찬부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입전 인물과 사건의 선정, 다양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전계소설에서 형상화 된 ‘있는 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이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당위성을 지시하는 셈이다. 작자가 제시하는 ‘있어야 할 세계’는 작자의 개인사적 입장을 비롯하여 정치적·당파적 계층의 입장을 대변

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49쪽.

7) 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 『문혀진 문학사의 복원-16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2007, 14쪽.

한다. 전계소설의 창작과 향유층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한문학 소양을 갖춘 식자층임을 고려할 때, 이들은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있는 사실’을 누가 왜 기억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작자가 속한 정치적·당파적 계층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편의 입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품을 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훈구파에 대한 사림파의 도덕적 우위 강조

<유연전>은 유연의 옥사 사건과 신원에 이르는 실제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사건으로부터 44년이 지난 후인 1607년에 이항복이 지었다. 유연은 형 유유의 실종 후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매부 이지와 종매부 심룡, 형수인 백씨 등의 음모로 형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유연의 처 이씨의 부단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혐의를 벗고 해원하게 된다. 유연의 억울한 누명이 신원되기까지는 16년이 걸렸고, 신원이 된 후에 <유연전>으로 작품화되기까지는 28년이 걸렸다. 유연의 옥사를 다룬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이항복의 <유연전>, 그리고 <이생송원록>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에 의해 기술된 객관적인 기록이고, <이생송원록>은 이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권득기에게 부탁하여 지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생송원록>은 무리한 설정과 꾸며낸 내용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외면당했던 기록이다.⁸⁾ <유연전>은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나, 단순한 사실 보고식의 전이 아닌 이항복의 관점에서 유연의 사연을

8)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에 대한 당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송하준(『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 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화회, 2001, 92~98쪽)의 논의를 참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유연전>을 짓도록 한 왕의 의도는 분명 유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설원 및 관의 기강 확립을 위한 훈계에 있다. 작자 이항복은 선조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의도를 현실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현실적 문제들 중 특정한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갔을 것이다.⁹⁾ 작품에서는 유연과 참여한 갈등을 맺고 있는 이지와 심통원 등을 악인 형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계략에 빠져 결국에는 사형을 당한 유연을 동정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 유연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왕실 중친 이지와 외척 심통원은 모두 훈구파로, 횡포와 전횡을 일삼던 인물들이다. 이지와 함께 유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형수 백씨의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항복이 주목했던 악인 형상은 이지와 심통원이라 할 수 있다. 유연이 옥사를 당했던 16세기 중엽은 4대 사화가 끝난 직후로 사림에 대한 훈구파의 탄압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유연의 억울한 사연을 작품화한 데는 사림파였던 이항복의 훈구파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작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작품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나는 연의 원통함을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형수 백씨로 하여금 먼저 증명하게 하지 않고 급히 관아로 묶어 보낸 것을 애석히 여기며, 지가 끝내 정도를 따르지 않다가 왕족에 합당하지 못한 죽음을 당한 것이 거듭 한스럽다.

다행이로다! 당시의 범망이 주밀(周密)치 못해 심통만이 홀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비록 그렇더라도 불행 중 다행인 일이 있으니, 윤선각(尹先覺)과 이원익(李元翼) 등이 연을 위해 전후좌우에서 도와주어 연의 사건이 알려지는 행운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사건의 전모가 당시에 드러나서 후세에 전해

9) 이현홍, 「실사의 소설화-유연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2, 365쪽.

질 수 있었으리오?(67~68쪽)

위 부분에서는 이항복의 입장에서 연에 대한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간결하게 이야기한 뒤, 지가 ‘정도를 따르지 않아 왕족에 합당하지 못한 죽음을 당한 것이 거둬 한스럽다’고 서술하고 있다. 연의 사연에 대한 이항복의 이 간결한 감상은 작품 창작의 가장 큰 동기가 연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소략하다. 오히려 지의 죄와 죽음에 대한 감상을 ‘거둬 한스럽다’는 표현을 통해 더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지와 함께 유연을 죽음으로 몰아간 형수 백씨의 처벌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유연전>에서 갈등을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주도적 인물인 달성령 이지(李致)는 을사사화의 공신으로 훈구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재물을 탐하여 처조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과정에서 재판관에게 청탁을 하는 등 지의 악덕을 세밀하게 그려냄으로써 이항복은 자연스럽게 훈구파에 속한 인물의 비도덕적 행위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지는 종실로서 궁가(宮家)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 시기에 궁가의 횡포가 매우 심각했음을 『선조실록』의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606년에 고위관리였던 유희서(柳熙瑞)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은 임해군(臨海君)을 심하게 다스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포도대장이 오히려 유배된 ‘유희서(柳熙瑞)의 사건’(37년 3월)이 있었다. 고위 관리가 살해당했는데도 선조가 앞장서서 죄인을 비호하여 이덕형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체직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사관조차 “선조의 총명으로도 오히려 사애(私愛)에 빠져 그(임해군)의 악을 모르고 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신(拷訊)의 형벌이 도리어 도적을 잡는 책임을 맡은 중재(重宰)에게 미치게 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순화군(順和君)이 민가의 재산을 빼고 살인을 일삼은 일(40년 3월), 순녕군(順寧君)이 오촌(五寸)의 재산을 빼앗으려다가

과직된 사건(40년 윤 6월) 등의 기록으로 보아, 궁가(宮家)에서 백성을 수탈하고 해친 사건이 비일비재했으나 선조는 오히려 “미열한 왕자를 각박하게 책한다”거나 “아들의 일로 아버지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여 이항복은 궁가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⁰⁾ 이항복은 사림파에 속하는 인물이고, 이 시기는 사화 후에 그 입지가 약해졌던 사림이 명분론을 내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펴려던 시기로, 부패한 훈구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통해 그들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성리학적 이론으로 무장한 사림파에게 있어 도덕성은 정치적 담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고, 부패한 훈구파의 모습은 높은 도덕성을 앞세운 사림파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강상(綱常)의 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강상죄’로 따로 국법으로 치죄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다.

세간에서 간혹 유가 어질지 못하게도 부모로부터 달아난 것을 두고 말들을 한다. 자식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달아난다면 인간의 도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달아난들 어디로 갈 것이며, 세상 어느 곳에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옛날에 어진 아들 신생(申生)이 아버지 진(晉) 헌공(獻公)의 명으로 억울하게 죽은 일이 있었거늘, 주자(朱子)가 이에 대해 “옳은 것으로는 마땅히 달아나야겠지만, 죽은 것이 예(禮)에 맞다”고 논했다. 설령 유(游)가 만부득이 아버지를 피하여 멀리 도망가야 했다 해도, 아버지인 진 헌공이 형인 신생을 무고하게 죽이자 진공자(晉公子) 중이(重耳)가 진(秦)으로 피신해 있을 때 천하에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거늘, 어찌 종적을 완전히 감추어 아무를 억울히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68쪽)

10) 송하준(2001), 앞의 논문, 83쪽.

위와 같이 이항복은 유의 불효에 대해 세간의 말과 ‘진 헌공-신생 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인간의 도리에 대해 상당부분 지면을 할애해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1607년) 『선조실록』에 따르면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칼부림을 한 경우(40년 1월)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건(40년 1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40년 윤6월) 등 강상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소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실추된 도덕성을 재차 강조하여 재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2.2. 광해군 정권에 대한 인조 정권의 도덕적 우위 강조 및 실절의 변호

권척의 <강로전>은 17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위한 명·청·조선의 치열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강로전>은 1618년 심하 전투에 도원수로 출정했으나 제대로 된 전투도 치르지 않고 후금군에게 항복해 호위호식 하며 지내다 정묘호란의 선봉으로 조선에 돌아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까지, 강홍립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강로전>에서 ‘강로(羌虜)’는 주인공 강홍립을 가리킨다. 성이 강씨인 오랑캐라는 뜻으로,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고 조선을 배신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자 붙인 제목이다. 10년 사이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랑캐라는 존재는 극단적 경멸과 혐오감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주인공을 오랑캐라 명명한 것부터 작가가 강홍립을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작품이 창작된 1630년은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세력들에게 있어 광해군의 실리외교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형성된 청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던 시기이다. 재조지은을 배

11) 송하준(2001), 앞의 논문, 82~83쪽.

신하고 후금에 화친 정책을 폈던 광해군조의 외교적 실정을 반정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지만, 현실적으로 후금-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었던 서인 세력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명분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관심과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¹²⁾ 즉, 강홍립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곧 광해군 정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하전투는 명청 교체기의 전환점으로 꼽히는 사건으로, 중국 중심의 중세적 국제 질서에 대한 이념적 옹호와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동북아의 강자 후금에 대한 현실적 대처 사이에서의 갈등이 한 데 얽혀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권척은 강홍립 휘하에서 이문학관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한 바 있다. 심하전투에서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한 후 탈출하여 돌아온 권척은 내내 실절(失節)에 대한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작자는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강홍립이라는 한 개인에게 심하전투 파병을 둘러싼 갈등 상황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린다. 권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일찍부터 문명을 떨쳤으나, 서얼이라는 신분과 심하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것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으며, 말단 관직마저도 부침을 겪었다. <강로전>은 강홍립이 죽고 3년 후에 지어졌는데, 이 시기 권척은 이인거의 난을 진압하고 공신으로 녹훈되어 진사시에 응시, 진사가 되었고 서부참봉을 지내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다. 사간원은 대각의 간관으로 그 자품(資品)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요직으로서 한미한 집안 출신이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대개 문벌세족이 차지하는 관직이다. <강로전>의 작가적 창작 동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중 당시 사간원의 간관에게 밑보여

12) 송하준,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의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42~46쪽.

‘우망(愚妄)한 서열’로 지목되어 탄핵되었던 바, 이 일로 권척이 자신의 신분적 처지에 더욱 분만(忿懣)을 품게 되었으며, 자신을 탄핵한 간관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논의¹³⁾는 주목할 만 하다. 이와 함께 실절에 대한 혐의 때문에 말단 관직에서 탄핵되었다고 보고, 자의에 의한 실절이 아니라 운명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라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내세우며 모든 책임을 강홍립에게 돌리고자 했다는 논의¹⁴⁾도 있다. 이 두 논의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간관이 권척을 탄핵한 본래의 뜻은 실절의 혐의에 있으나, 의론이 분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고려해 서열이라는 신분을 꼬투리 잡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열은 양반의 자손이면서도 양반의 지위에서 도태되어 중인층으로 굳어진 계층으로, 봉건적 위기를 맞은 국가의 현실이 서열의 참여와 타협을 필요로 하면서 17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서열의 지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물론 적서차별 타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집권층에서는 정책적으로 능력 있는 서열의 허통을 통해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 것이다.¹⁵⁾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역모사건을 수습하는 일에 공을 세운 인물이며 벼슬이 서부 참봉으로 미관말직에 지나지 않는 권척을 굳이 지목하여 파직을 간언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정치적 이유, 즉 실절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결국 권척의 파직을 요청하는 직접적 이유는 뜻밖에도 ‘우망한 서열’이라는 신분적 제약이다. 뛰어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

13) 박희병, 『17세기 초의 송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63~64쪽.

14) 조현우, 『강로전에 나타난 전쟁의 기억과 육망의 서사』,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 -17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2013, 165~182쪽.

15) 17세기 서열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김정현, 『17세기 서열 직역 변동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의 논의를 참조.

분적 제약으로 부침을 겪게 된 작자는 문벌세족의 의관을 입은 강홍립이 도리어 “오랑캐의 주구가 되어 하늘에까지 사무친 죄악과 만고에 없는 흉악”을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의 주인을 저버리지 않”는 중과 비교하여 비판한다.(158쪽) 권칙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문벌 위주로 사람을 등용하여 나라가 오랑캐에 의해 유린당하는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¹⁶⁾는 점을 강조하여 강홍립에게 모든 책임을 돌림으로써, 신분적 제약-서열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동시에 자신의 실절 혐의를 벗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17세기 전계소설의 서사 전략

: 감정의 유발과 선택적 재현

전장에서 17세기 전계소설 작품의 창작 동인을 작자와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누가 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이제 각 작품들이 어떠한 서사 전략으로 주제를 나타내고자 하는지, 즉 어떻게 기록하였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 출발은 창작 동인에 따른 장르 선택의 문제부터 시작한다. 전계소설은 ‘전의 형식을 갖춘 소설’로 입전인물의 선택과 인물의 행적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양식이다.¹⁷⁾ 그런데 17세기 전계소설로 꼽는 <유연전>과 <강로전>은 분명

16) 신혜진(2008), 앞의 책, 55쪽.

17) 17세기 전계소설을 지은 작자들이 ‘소설’이라는 장르 인식을 가지고 작품을 집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통적 양식인 ‘전’을 짓는다는 의도로 창작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전계소설로 분류하는 몇몇 작품들은 사실에 입각하였으나 작품화 과정에서 소설적 허구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고전 산문 양식인 전과는 다르다.

‘전’과는 다르다. 작자는 본인이 속한 정치적·신분적 입장의 당위성 옹호와 설득을 위해 전 양식의 경험적 진실성을 빌려온다. 전의 양식적 특징인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또는 인물의 나열적·요약적 제시’를 벗어나 자신의 창작의도에 따라 인과성을 부여하고, 주요 사건이나 상황의 장면을 통해 인물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인 중 필요에 따라 한 면만을 부각하는 서술 전략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이항복은 유연의 옥사와 관련한 내용을 실록과 유연의 부인 이씨의 가승을 보고 <유연전>을 창작했다. 권척은 심하전투에 직접 참가해서 일부의 사건은 직접 경험한 기억이겠지만 강홍립의 후금 시절의 일은 실제로 경험했다고 보기 어렵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으로 <강로전>을 지었을 것이다. 사실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전의 형식을 끌어옴으로써 독자는 작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된다. 두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주요 사건과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도 그 작품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사실적 인물과 사건을 작자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재현하는 과정에서 허구성이 끼어들게 된다.¹⁸⁾ 이 장에서는 각 작품들이 창작 동기에 따라 입전 인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동정의 대상으로의 형상화와 사건의 재배열

전계소설에서 입전 인물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항복

18) 박희병은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30쪽)에서 ‘사실에 입각한 소설이 있다면, 그런 소설도 허구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소설이라 하더라도 허구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 경우 허구성은 이른바 윤색이나 부연, 즉 세부의 상상적 확대나 창조된 대화, 끼워 넣어진 매개적 인물 등에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실존인물인 주인공과 그 주변세계가 얽히는 양상에 대한 소설적 ‘축조방식’에서 확인될 수도 있다.

은 작품의 주인공으로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상실한 훈구파의 인물로 인해 죽음까지 맞게 되는 유연을 선택하였다. 이항복은 정치적 입장에서 ‘훈구파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라는 창작 동기를 가지고 ‘유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동정과 유연을 살인범으로 오판한 부정한 판관에 대한 경계’라는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이항복의 <유연전>은 실록을 기본으로 가승을 참고하여 지은 것으로 작품 내 사건과 작품 외 사실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항복이 선택한 서사 전략은 유연을 ‘동정의 대상’으로 그림으로써 그를 위기에 빠트리는 적대적 인물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동정은 연민과 달리 특정한 행위로 표현될 것이 요구되는 윤리적 감성으로, 사전적으로는 연민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을 뜻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 가까운 감정이고,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길 뿐 아니라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라는 정서·인지·행위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¹⁹⁾ 고통 받는 타인의 입장에 스스로를 놓아볼 뿐 아니라 주어진 비참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동정은 윤리적인 개념이고, <유연전>에서 작자가 의도한 유연에 대한 감정은 동정에 가깝다. 유연의 억울함에 ‘불쌍함’을 느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독자가 느끼는 것은 유연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유연의 고통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적 재현’이다.²⁰⁾ 작자는 유연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²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계략에 결국 사형을 당하

19)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14쪽.

20) 손유경(2008), 위의 책, 17쪽.

21)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유연의 모습은 가짜 유유를 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58쪽), 죽은 목숨은 다시 살 수 없으니 나라인들 이를 고칠 수 없으니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60~61쪽), 부인 이씨에게 억울한 죽음

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전개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를 위기에 빠트린 상대 인물들을 악인 형상으로 그리며 중층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²²⁾ 유연을 동정의 대상으로 유도하는 작자의 서사 전략으로 인해 독자는 유연의 사연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데, 전반부 옥사 사건에서는 유연의 누명이 벗겨져서 유연이 풀려나기를 바라게 되고, 후반부 신원 과정에서는 유연의 억울함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이지와 백씨, 심통원 등이 짓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감정을 견인하여 유연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자들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것이다.

작자는 유연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고 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제시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감추었던 정보를 하나씩 풀어놓음으로써, 독자는 서사 진행 과정에 따라 퍼즐을 맞추듯이 사건의 전말을 완성하게 된다. 다초점화된 사건 구성과 제한적 정보 제공은 서사전개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독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을 대하도록 유도한다. <유연전>에서 독자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나타난 인물이 진짜 유유인가’하는 점이다. 이지는 유연에게 세 번이나 ‘유유가 나타났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유연은 매번 종을 먼저 보냈다가 ‘유유가 아니라’는 종의 보고를 받게 된다. 이지의 세 번째 편지를 받은 유연은 직접 확인을 하러 나선다. 유연이 직접 확인도 해보고, 널리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진짜 유유인지 확인할 수 없어 결국 대구 관아에서 진위를 판별코자 한다. 독자는 이지

을 반드시 신원해줄 것을 부탁하는 유서를 쓴 것(61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이에 대해서는 신해진,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쪽 참고.

와 심룡의 “진정 유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들으면 진짜 유유 인가 싶었다가(54쪽), 유유의 부인 백씨의 여종 놀빼의 꾸짖음(55쪽)에 이르면 다시 유유가 가짜인가 의심스러워진다. 관아에서 형구를 갖추어 의심스러운 유유를 결박하고 문책하고서야 “대답할 계책이 막히게 되자, 때로는 유유라 하고 때로는 응규라 하면서 횡설수설 두서없게 말하여 일부러 정신을 헛갈리게” 하는 대목(56쪽)과 관노 박석의 집에서 지내던 중 밤을 틈타 달아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유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한층 깊어진다. 분명 밤을 틈타 달아난 유유가 재물을 탐한 유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형수 백씨의 고발을 보면 형수 백씨도 수상한 인물임이 의심되지만, 여기까지 제공한 정보로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유가 진짜가 아님을 알고 있던 감사에게 고발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씨는 끈질기게 이웃 고을로 이송하기를 애걸하여 유연은 현풍에 옮겨 수감된다. 재심리하여 평의를 내리기도 전에 강상의 죄를 물어 그 일을 제대로 처결하지 않은 부사 응천을 파면하고 연은 재판장을 받게 된다.

재판장에서 연의 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행방불명되었던 유유가 나타났다는 지의 편지에 “채응규”라는 이름이 나오고, 종을 보내 확인하니 채응규 본인이 스스로 “저는 채응규라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삼이의 잘못된 전갈을 듣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58쪽)라고 말하여, 독자는 나타난 인물이 가짜 유유임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유유가 가짜임을 의심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지가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중반부에 이르러 유연의 위기 직전에 제시되면서 이후 유연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더욱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유연전>에서는 유연의 재판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하던 유연이 곤장 마흔 두 대에 없는 죄를 있다고 자인하거나 재판 도중 나졸에게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입을 맞는 등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 유연의 위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긴장감은 후반부에 유연의 억울함이 쉽게 신원되지 않음으로써 지속된다. 이후 간헐적으로 유연의 옥사에 대한 분분한 여론이 있었지만, 윤선각이 경연에서 진짜 유유의 존재에 대해 아뢴 후에야 유연의 억울함이 해소될 계기가 마련된다. 유연이 죽은 지 16년 만이었다. 재심을 통해 드디어 유연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 특히 춘수의 진술을 통해 이지가 모든 음모의 주모자였고, 유연의 재판 시에도 판관 심통원에게 청탁하여 유연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못했음이 알려진다. 형을 죽였다는 누명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처지였던 유연의 사연은 시종일관 독자로 하여금 동정을 느끼게 한다. 신원이 되었어도 이미 유연은 죽었고, 유연에 대한 독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 남아 유연과 대립한 인물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 독자의 반감은 그 인물과 인물이 속해있는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3.2. 분노의 대상으로서의 형상화와 사건의 의도적 감추기

<강로전>은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한 숭명배호론을 잘 대변하고 있는 작품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실존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려진 역사적 사실이 실제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작품 내 사건에 작품 외 사실을 모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이 작자의 의도에 따라 일부 생략되고 일부 변형되어 그려지고 있다. 권척은 자신이 받고 있는 실절의 혐의로부터 이목을 돌려주는 동시에 서인 세력의 정당성도 높이기 위해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인물로 강홍립을 내세웠다. 강홍립의 인물 형상은 그 실제적 진실에 입각해 있다기보

다는 일그러뜨림과 고의적 비방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실제로 작품 전반부에서는 강홍립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까닭을 ‘밀지’와 ‘군량의 부족’이라고 강홍립의 직접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데, 밀지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단지 밀지의 존재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그려져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밀지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해 의심의 여지를 남긴다. 군량의 부족에 대한 언급도 강홍립의 말로만 표현될 뿐이고, 그에 대해 작품 내의 등장인물들의 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투를 회피하려는 강홍립의 억지스러운 핑계처럼 여기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광해군의 외교정책이 기미책과 자강책으로 일관되었다”²⁴⁾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심하전투에서 보여주는 강홍립의 입장이 광해군의 외교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단지 전쟁을 피하고자 하여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군량의 부족’이라는 언급도 당시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군량 보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토로한 《광해군일기》(11년 3월)와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²⁵⁾ <강로전>은 강홍립의 입장과 역사적 배경과의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 없이 겉으로 드러난 행적만을 의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강홍립의 인물 형상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로전>이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악인형 인물 형상이 최초로 등장했던 이항복의 <유연전>의 영향으로 보인다. 작자 권칙은 이항복의 사위로서 <유연전>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권칙은 <강로전> 저작에 있어 장르의 선택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 등에 <유연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박희병(1998), 앞의 논문, 51쪽.

24) 송하준(2004), 앞의 논문, 44쪽.

25) 조현우(2013), 앞의 논문, 180쪽.

<강로전>을 접한 독자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오랑캐의 편에서 조선을 배신한 강홍립이라는 인물에게 분노한다. 분노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정의에 위배될 때 독자는 분노를 느낀다.²⁶⁾ 작자는 정묘호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독자에게 그 고통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홍립을 내세우고, 연민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오로지 분노를 유발시키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강홍립에 대한 긍정적 요인은 소략하거나 생략하고, 전략적으로 부정적 요인만 부각한다. 작자는 심하전투부터 후금에 투항하는 과정까지를 그린 전반부에서 강홍립의 곁으로 드러난 행위만 관찰자처럼 ‘보여줌’으로써 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전투가 소강상태가 되었을 때 관서 지방을 지나면서 “질편하게 술판을 벌이고는 군무를 돌아보지 않”거나(111쪽), 밀지의 존재만 언급하며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도원수 강홍립의 행동(112쪽)은 방탕하고 태만하며 비겁한 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자는 강홍립의 비겁한 모습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들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몸을 사리지 않고 적과 싸우려는 마당에 주장(主將)이란 자는 오만하게도 무턱대고 밀지만을 핑계하고 있으니, 군사를 일으켜 적을 정벌하라는 밀지는 있을지언정 도대체 싸우지 말라는 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장졸의 목소리(113쪽)나 “영공께서 임금과 부모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구차히 빌붙어 목숨을 구걸하는 바람에 온 집안의 혈육이 죽임을 당해 유혈이 낭자하건만, 부귀에 안주하고 계집에 빠져서 눈앞의 쾌락만 탐닉하고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보시렵니까?”라는 한윤의 나무람(139쪽)을 통해 강홍립을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김응하의 영웅적 모습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이와 대조적인 강홍

26) 손유경(2008), 앞의 책, 178쪽.

립의 소인배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서술이기도 하다. 김응하는 홍립에게 반드시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알고 한 부대를 스스로 맡아서 적진을 향하여 앞서 나아가기를 원하기도 하고(113쪽), 명나라의 도독은 김응하를 “영웅”으로, 강홍립을 “교활함만 있는 소인배”라 칭한다(115쪽). 작품에서 강홍립은 시종일관 일신의 안위만 챙기는 겁 많은 소인배로 그려진다. 이 모습은 후반부 오랑캐의 진영에 투항하여 약 8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지속되는데, 이때부터는 일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강홍립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의 내면까지 전지적으로 그리고 있다. 급기야는 한운의 농간에 빠져 가족의 복수를 위해 조선을 정벌하려던 의도조차 왕위까지 욕심내는 역심을 품은 것으로 그려서 강홍립의 부정적 측면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강홍립은 노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친척과 벗들에게 외면당하고 숙부에게 꾸지람을 듣는 허망한 상황에서도 후금에서 첩이었던 소녀(蘇女)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소녀에게 달려가려다가 스스로의 거짓말이 들통나 중죄를 받을까 염려되어 결국 소녀를 만나러 가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임종 시까지도 본인의 신세가 비참하게 된 연유를 젊은 시절 ‘의기가 날카롭고 탁월하여 대각에 출입하면서 조금만 언짢게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해쳤던 일’ 때문인 정도로 스스로의 죄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홍립은 오랑캐의 수구가 되어 나라를 짓밟았으며, 감히 임금의 자리를 탐한 대역죄를 지었으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기는커녕 자기기만적으로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 큰 벌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까지 만들고 있다. 때문에 강홍립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에서도 독자는 악인의 비참한 말로에 위안을 삼으면서도 분노를 유지함으로써, 당초 작자가 의도하였던 강홍립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세기 전계소설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작자의 이

념적·정치적 입장을 변호 또는 대변하고자 창작되었다. 이를 위해 장르 선택부터 입전 대상 및 사건의 선정과 다양한 서사 장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서술 전략을 살펴보았다. <유연전>은 사림파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한편, 훈구파의 비도덕성을 비판하고자 한 작품이다. 유연을 위기로 몰고 간 악인 형상의 징치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에 반영된 도덕성의 강조는 임진왜란 이후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리학 적 명분론의 공고화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림파의 정치적·당파적 입장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연전>은 억울한 피해자였던 유연의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의 욕망을 위해 음모를 꾸며 타인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악인형 인물과 주인공의 갈등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유연을 동정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실제 사건을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작품 내에서 재배열 하였다. <강로전>은 강로라는 부정적 주인공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그에게 역사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텍스트이다. 인조반정의 주체들이 정묘호란 이후 자신들의 명분을 다시금 공고히 하고, 또한 작자 개인의 실절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패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홍립에게 전가하고자 모든 분노가 강홍립을 향하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강홍립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은 언급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하였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이항복의 <유연전>과 권척의 <강로전>을 대상으로 17세기 전계소설의 창작 동인과 서사 전략을 분석하여 형성기의 전계소설을 조

망해보았다. 17세기의 전계소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작자의 창작 동인에 따라 기억을 재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역사 또는 전과는 구분되는 서사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정한 흐름은 18세기 전반 기 작품인 <김영철전>에서도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김영철전>은 <강로전>과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변주하여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로전>이 주로 당파적 시각을 통해 한 인물을 폄훼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적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면, 홍세태의 <김영철전>²⁷⁾은 표류와 정착을 반복하는 한 개인과 그 실존의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전계소설의 또 다른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²⁸⁾ <강로전>과 <김영철전>은 작품 내 시대적 배경이 같고, 주인공이 동아시아 전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그러나 <강로전>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창작시기가 매우 가깝고 작품 내 실제 사건과 작자가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반면, <김영철전>은 시기가 반세기 차이나는 데다가 작품 내 실제 사건과 홍세태와의 직접적 관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공유한 두 작품의 서사화는 이 차이 때문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타난다. <강로전>은 전쟁의 장수로 참여하여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강홍립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작품은 그와 함께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망쳐 돌아와 실절의 혐의를 받던 권칙의

27) 홍세태의 <김영철전>의 창작시기는 처음 이 작품을 소개한 박희병(『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민중의 삶』,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13~51쪽)의 논의에 따라 작자의 생몰 년간을 고려하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보았는데, 이종수(『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 『정신문화연구』 3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3~317쪽)에 따라 <독김영철유사>가 실린 《유하집》 13권의 저작년도별 편제를 근거로 1716~171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 이종필, 『조선중기 전란의 소설화 양상과 17세기 소설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69쪽.

작품이었다. 따라서 <강로전>은 당대의 집권층인 서인 세력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강홍립을 부정적 인물 형상으로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작품 내에서는 명·청에 대한 정치이념적 입장, 즉 숭명배호 사상도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철전>이 창작되었던 18세기에는 이미 명나라의 국운은 쇠하였고 청나라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였음을 조선의 지식인들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그에 대한 여론이 <김영철전>에 반영되어 있다.

역관사(譯官四家) 중 한 사람인 홍세태는 중인 문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인물로, 2000여 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시와 40여 편의 산문을 남겼는데, 이들 작품에서 자신의 처지와 세계의 모순을 걱정적으로 드러내다가 하면 다른 사물에 빗대어 내비추기도 하였고, 역사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 유교적 덕목의 실천을 힘주어 노래하기도 하였다. 홍세태는 서사 양식을 통해 ‘있는 세계’와 ‘있어야 할 세계’를 중인작가 가운데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인물이다.²⁹⁾ 홍세태가 김영철의 일대기를 작품화한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영철이 홍세태와 같은 중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김영철은 변한어를 잘 안다는 대목이 있고 개주의 전투에서 통역원으로 발탁되어 종군하게 되는데, 통역의 일이 세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신분은 중인이라 할 수 있다.³⁰⁾

작품에서 김영철은 1618년 심하전투에 군사로 참전하여 후금과 명나라를 떠돌다가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를 했지만, 1637년과 1640년, 1641년 재출정을 하게 된다. 이때 후금에 머물던 당시 은원을 지게 된 아라나(阿羅那)라는 인물 때문에 반복적으로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그때마다 조선의 관리가 대신 속물로 내어준 “말값”과 “남

29) 정병호, 「홍세태의 전과 소설」,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34쪽.

30) 정병호(1993), 위의 논문, 135쪽.

초” 덕에 목숨을 구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물 값은 고스란히 빛으로 남고 김영철은 84세까지 가난에 시달리며 자모산성의 수졸로 “끝끝내 곤궁하고 울울한 신세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반평생 동안 전쟁에 시달리며 부침을 겪었던 김영철의 삶을 사실적인 필치로 그린 <김영철전>의 또다른 이본들에서는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의 소재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다.³¹⁾ 다만 흥세태만이 직접적으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철은 나라를 위해 사지를 넘나들며 노고가 지극하도록 군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효를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한 공에 대한 보상은커녕 죽을 때까지 군역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같은 중인 출신으로 신분적 제한 때문에 출사하지 못하여 평생 궁핍한 삶을 살았던 흥세태는 김영철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층민에게 부과되는 군역의 가혹함과 종군의 고통을 문제 삼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의명분 하에 희생된 많은 백성을 안타까이 여기는 한편, 백성을 돌보지 않는 조정과 관리들을 비판하기 위해 <김영철전>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

<독김영철유사>의 존재로 흥세태의 <김영철전>은 <김영철유사>라는 작품을 보고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김영철유사>가 전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내용의 세세한 부분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김영철유사>를 읽고 김영철의 사연이 매우 슬퍼서 전을 지었다는 세주³²⁾를 통해 흥세태가 김영철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연전>과 <강로전>에서는 분노를 유발한 악인들이 징치되는 결말로

31) 흥세태의 <김영철전>과 이본에서 보여지는 작가와 사대부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송하준(2004)논의(앞의 논문, 39쪽~42쪽) 참고.

32) 金永哲, 平安道永柔縣人. 戊午深河之戰從軍, 陷虜中有妻子. 逃入皇朝, 居登州亦有妻子. 後潛附我使船東還, 則家業一空. 爲慈母山城守卒而死, 年八十餘矣. 余甚悲之, 爲立傳.(〈讀金英哲遺事〉, 《柳下集》 卷之十三)

독자는 감정적 정화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된다. 그런데 <김영철전>에서 죄 없는 김영철이 끝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게 되는 것은 삶의 유한성과 국가의 무능함에 의한 것으로 그려진다. 국가 혹은 운명은 한 개인을 넘어선 것으로 징치가 불가능해 김영철의 고통에 깊이 감정이 입한 독자에게는 결국 애잔함과 안타까움만 남게 된다.

<김영철전>에서 김영철이 심하전투에 참전하기 전 그의 조부는 영철에게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을 거듭 강조한다. 김영철은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건주와 등주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한 생활과 처자식까지 버리고 끝내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 여정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조부의 당부가 김영철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야기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갖은 고생 끝에 돌아온 조선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난과 빛, 끝없는 군역이었다. 파란만장했던 김영철의 일생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아라나와의 은원으로 인한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진다. 이것은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만, 이 끈질긴 인생은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되어 나타난다.

홍세태는 김영철의 고통에 독자가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한 인물의 고통과 불행이 개인의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그가 속한 계층 전체의 경험으로 의미화하였다. 당대 역사의 전체적·객관적 전개 속에 민중의 삶을 위치시켜 그 의미와 문제를 본격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시도를 통해 <김영철전>은 한 민중의 개인사와 당대 동아시아사가 한데 혼용되어 빼어난 역사적 총체성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³³⁾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책임을 강홍립이라는 한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 <강로전>과는 달리, <김영철전>에서는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고통과 불행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생생하게 재현함으

33) 박희병(1990), 앞의 논문, 13~14쪽.

로써 무능한 조선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17세기 전계소설은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기억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있는 세계’를 그림으로써 ‘있어야 할 세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는 세계’는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이며 ‘있어야 할 세계’는 이념적·윤리적·도덕적 이상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있는 세계’의 부조리함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비판한다는 것은 작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있어야 할 세계’의 정당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작자는 전계소설에서 ‘있어야 할 세계’의 모습을 ‘있는 세계’를 그리는 와중에 전략적으로 틈틈이 배치하기도 하고, 작품 말미에서 논찬의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는 작품을 통해 삶의 총체적 체험과 더불어 입전대상에 대한 강한 감정이입을 통해 주제에 접근한다. 인간의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은 인물의 성격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넘어 서사 내에서 인물의 개연성 및 서사적 정합성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며, 때로는 서사와 독자를 밀착시켜 감화·감동이 보다 쉽고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추동하여 작가의 의도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³⁴⁾ 독자가 작중인물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공유하거나, 그 인물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반응 정도가 높아질수록 주제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감정은 인물에 대한 독자의 시선을 잡아두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며, 인물에 대한 편견을 제공하여 작자가 유도하는 대로 독자의 감정이 따라가게 한다.

<유연전>에서는 유연에게 느끼는 동정이 이지와 심통원에 대해서는 반감을, 그리고 유연의 신원과 유연의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는 윤선각, 이원의 등에 대한 동질감·호감을 갖게 한다. <강로전>에서는 강홍립에게 느끼는 강렬한 분노를 압도적으로 유발하여 패전의 책임을 강홍립에게 전가한다. <김영철전>에서는 김영철의 불행에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고

34)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1쪽.

통이 결국 하층민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부당함을 자각하도록 한다. <유연전>과 <강로전>은 ‘있는 세계’에서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는 비난의 대상을 설정하지만, <김영철전>은 ‘있는 세계’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는 전계소설 작품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개인 혹은 집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로 변화하는 노정에 접어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을 시작으로 18세기에 창작된 박지원과 이옥, 김려의 전계소설은 비천한 인물의 입전과 풍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서사화하는 ‘있는 세계’의 스펙트럼을 넓히게 된다. 17세기 전계소설 작품들은 이전의 초기소설사의 주류를 이루던 전기소설이 가진 낭만성과 환상성을 탈피하여, 경험적 사실을 중시하는 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허구적 진실-예컨대 있어야 할 세계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태도가 돋보인다. 이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삼아 일정 정도 허구화를 가미함으로써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18세기에 들어 비천한 인물들까지 입전대상이 됨으로써 서사화 할 수 있는 현실 문제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소설사의 사실주의 발전 지형도에서 주시할만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洪世泰, 《柳下集》 권13.

김정현, 「17세기 서열 직역 변동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1~77쪽.

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 『문혀진 문학사의 복원-16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2007, 13~36쪽.

박재연·양승민, 「원작 계열 김영철전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85~110쪽.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민중의 삶」,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1990, 13~51쪽.

박희병, 「17세기 초의 송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당, 1998, 35~67쪽.

박희병, 「한국한문소설사의 전개와 전기소설」,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81~109쪽.

박희병,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1~359쪽.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1~320쪽.

송하준,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유연전의 입전 의도와 그 수용태도」,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75~101쪽.

송하준,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상과 주제 의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1~182쪽.

신해진, 「유연전의 악인 형상과 그 행방」, 『어문연구』 54, 어문연구학회, 2007, 243~274쪽.

신해진,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서, 2008, 1~219쪽.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363쪽.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 『정신문화연구』 30(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3~317쪽.

이종필, 「조선중기 전란의 소설화 양상과 17세기 소설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1~173쪽.

이현홍, 「실사의 소설화-유연전을 중심으로」, 『한국 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

사, 1992, 355~372쪽.

정병호, 『홍세대의 전과 소설』, 『동방한문학』 9, 동방한문학회, 1993, 133~165쪽.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21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1~626쪽.

조현우, 『강로전에 나타난 전쟁의 기억과 욕망의 서사』,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17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2013, 162~195쪽.

ABSTRACT

The Creative Motivation and Narration Strategies
of the 17th Century Jeongye Novels
- With Focus on <Yuyeonjeon> and <Gangrojeon> -

Baek, Ji-min

This thesis examined the fetal movement and variableness of Jeongye novels through the creative motivation and narration strategies of the 17th century Jeongye novels. Lee Hang-bok's <Yuyeonjeon> describes the real-life events of Yuyeon's imprisonment and taking revenge in order to accuse and criticize Hugupa, and Gwonchik's <Gangrojeon> deals with historical events to justify the Seoin group and the writer's own position and highlights Ganghonglip as negative character embodiment. The trend of the creative motivation and narration strategies represented in the 17th century Jeongye novels continues in the 18th century as well and is regarded as what is noteworthy in the path of realism in the history of ancient novels.

Key Words Jeongye novels, <Yuyeonjeon>, <Gangrojeon>

논문투고일 : 2016.6.30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